

이순신 장군 호국정신 기리는 '명랑대첩축제' 열린다

18일부터 3일간 진도·해남 일원 ICT융복합 기술 활용 해전 재현 참여형 출정 퍼레이드 등 다채

2024년 명랑대첩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도 녹진관광지와 해남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명랑대첩축제는 정유재란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적을 물리쳐 조선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이순신 장군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평화의 만가행렬', '승전의 북놀이 퍼레이드' 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역사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조선수군과 함께 싸웠던 진린장군 후손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조선수군 출정 퍼레이드도 진행해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콘텐츠도 선보인다. 개막식 메인 프로그램인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미디어 해전은 3면의 대형 LED스크린을 결합한 다면상영시스템과 LED대북, 비전플래그를 활용한 군무로 명랑해전을 현실감 있게 재현한다.

바다 맵핑과 LED 페어링을 활용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돌격하는 판옥선과 승전의 회오리 불꽃쇼를 통해 참석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명랑대첩 승리의 감동을 선사할 방침이다.

압도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국카스텐의 축하공연을 통해 명랑대첩축제의 개막식을 더욱 화려하게 빛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중국 쓰촨성 예술단의 특별공연, 트로트와 일렉트로닉 댄



2024년 명랑대첩축제가 오는 18~20일 진도 녹진관광지와 해남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2023 명랑대첩 축제'에서 진행된 조선수군 출정 퍼레이드. 전남도 제공

명랑대첩축제 주요 프로그램

출정 퍼레이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군 해상퍼레이드
XR미디어해전	불꽃 드론 라이트쇼	불꽃쇼
국립 남도국악원 축하공연	판옥선 미디어아트	유등전시

스 뮤직(EDM)의 환상적 콜라보를 보여 줄 '명랑한 밤', 울돌목의 낙조를 배경으로 한 몽환적인 감성 발라드 공연 '노을이 빛나는 밤에' 등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채로운 무대도 준비됐다.

조선수군의 웅망함을 이어받은 우리나라 해군과 공군, 해경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블랙이글스 에어쇼', '울돌목 해상퍼레이드',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 홍보대는 명랑대첩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선수군 무예대회, 명랑 치어리딩 경연대회,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온겨레 강강술래 경연대회, 수군수군 팔씨름 등 축제장에

서 펼쳐지는 각종 경연대회는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 '명랑 배틀십', '창현 거리노래방', '충무공 활쏘기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수문장 교대식, 버스킹 매직쇼와 울돌목 주말장터 특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알찬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 안전대세도 강화한다. 해남군과 진도군, 소방서, 경찰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물, 전기, 보건·위생 분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4 명랑대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연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관광객이 명랑대첩에 담겨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확대하길 바란다"며 "특히 실감나는 미디어 해전과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이 명랑대첩 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로 치르자"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1박2일 동안 순천시 웹툰 기획안 만든다

순천로드 창작캠프 웹툰메이커톤 내일부터 그린아일랜드 일원서

순천시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그린아일랜드 일원에서 웹툰메이커톤을 개최한다. 사전 참가자 모집을 통해 최종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예비 창작자 30명과 순천시 기획발전특구 앵커기업인 케나즈 소속 현지 전문가 멘토 6명이 참여한다.

웹툰메이커톤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순천로드 창작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순천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웹툰 기획안을 만든다.

프로그램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보는 영감 투어, 케나즈 소속 현지 작가 특강과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동천과 그린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진 행사장에서 창작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메이커톤 종료 직후 최종 8편 이내의 우수 기획안을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편

당 2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우수 기획안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1화 분량의 웹툰을 제작하고, 제출된 작품은 네이버웹툰 '도전 만화' 코너를 이용한 대중 평가와 외부 전문가 및 순천시 내부 직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수작 3편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순천만과 정원이라는 독보적 자연 자원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채워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번 순천로드 창작캠프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는 또 다른 앵커기업인 로커스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메이커톤이 열린다.

메이커톤은 '만들다(Make)'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주제와 관련된 재료와 영감, 멘토링, 공간 등을 제공해 주고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돕는 행사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민의 날 기념 '편(FUN)편(FUN)한 콘서트'

오늘 군민광장서 두번째 공연

고흥군은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 '편(FUN)편(FUN)한 콘서트' 두 번째 공연을 11일 규정 앞 군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흥군민의 날 전야제'를 대체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사회자 겸 가수 오원화와 초대 가수 주권기, 이예은을 비롯한 지역 가수

들이 출연해 통기타와 트로트 공연을 선보인다.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며 펼쳐지는 '편(FUN)편(FUN)한 콘서트'는 많은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공연에는 5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특히, 녹동항에서만 진행되던 거리공연(버스킹)을 고흥읍에서도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광양백운산자연휴양림, 숲속 작은 운동회 개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광양시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숲속 작은 운동회'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숲속 작은

운동회는 10일, 11일, 18일, 25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높은 관심에 부응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참가자들은 청팀-홍팀 대항전으로 나뉘어 '큰공 머리 위로 굴리기', '박 터뜨리', '줄다리기' 등 6종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3년부터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유아를 위한 유아숲(숲유치

군 관계자는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이 찾아주셔서 놀랐다"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공연을 준비해 군민 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편편한 콘서트' 외에도 '녹동항 드론쇼 거리공연(버스킹)'과 '수상한 외갓집' 뮤지컬 공연 등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공연을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년 전문성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숲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심현우 휴양림과장은 "아이들이 백운산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면서 자긍심과 협동심을 키우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운동회를 위해 안전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